

#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경제 윤리 의식

## Differences of the Economic Ethics Depending on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김 정 훈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Kim, Jung Hoon  
Division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conomic ethics among Koreans today and explored the differences of the attitudes toward the economic ethics depending on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As results of the study, 1) consumers tended to emphasize the business ethics including their responsibility on the society and ethics of the economic systems including fairness. But their economic ethics to themselves were very flexible and acceptable from the self-centered views. 2) Consumers living in the city area, aged 20's, being on more high level of the social status, and not having religion had more self-centered economic ethics than others.

**Key words:** economic ethics, consumers' characteristics, Jeollabuk-do

### I. 문제제기와 목적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윤리라는 용어에 나름대로 익숙하다. 가정윤리, 시민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전통윤리.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윤리, 성윤리, 정보통신 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윤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윤리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여러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 왔다.

이중 경제윤리란 경제활동의 목표를 정하는 가

치의식으로서 인간이 경제생활을 할 때, 궁극적으로 지켜야할 경제도덕이며, 인간의 삶에 긴요한 재화의 생산과 분배 및 처분을 둘러싼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이다. 따라서 경제윤리의식은 경제생활을 하는데 바람직하고 모두가 추구해야 할 생활 준거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감정, 지식, 판단, 신념 등을 포괄하는 경제 윤리에 대한 가치관 내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근, 1999; 김현인, 1997).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의 경제윤리는 두레와 품앗이로 대표되는 공동체 윤리와 선비정신에서의 성(誠),신(信),정(正),화(和)라는 검소, 성실, 정직, 공정, 화합,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양성근, 1999).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윤리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과윤리, 성취윤리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경제윤리에 대한 인식이 소홀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같은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 Hoon  
Tel : 063)850-6650 Fax : 063)850-7301  
E-mail : osu@wonkwang.ac.kr

관점에서 경제사회의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경제시민들의 올바른 경제윤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경제사회에서 건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개개 소비자들이 가진 경제윤리는 그들의 소비자 행동과 의식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소비자가 경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경제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윤리에 대한 연구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윤리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권오신, 2000; 김현인, 1997; 양성곤, 1999; 유호연, 1999; 이희구, 1991; 이종경, 1994), 경제활동의 주연령층인 성인기 소비자들의 경제윤리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경제윤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경제행동의 동의된 가치적 측면의 행동의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층이 어떤 경제행동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근간으로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본주의적인 경제행동과 전통사회의 유교적 경제관념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활동 연령대 소비자들의 경제윤리의식을 이해하고 이들의 경제윤리의식이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및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들의 수립 및 시민 경제사회의 경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 II. 관련 연구 고찰

### 1. 경제 윤리의 하위 영역

경제윤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윤리의 다양한 하위 영역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

사함으로써 경제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조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양성곤(1999)의 연구에서는 소비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경제 공동체 윤리로, 홍승직(1969)의 연구에서는 기업관, 고용관, 취업관, 재산관, 금전사용관, 사회계층관, 지연관, 한국인 자아관, 성공관으로, 남선우(1983)의 연구에서는 취업관, 경제생활 태도, 경제발전에 관한 영역, 장래 생활에 대한 의식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또 오병두(1981)는 직업, 소비, 저축 및 투자, 분배, 일반적인 경제관념으로, 양인석(1983)은 가정경제 태도, 경제관, 직업관, 기업관, 경제적 가치, 사회의식으로, 광영일(1988)은 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기업에 대한 인식, 소비에 대한 의식, 국민경제에 대한 의식, 국제경제에 대한 의식, 국민복지에 대한 의식, 인간존중에 대한 의식으로, 이희구(1991)은 소비의식, 노동가치의식, 기업의식, 국민경제의식, 국제경제의식으로 김종삼(1994)은 생산, 분배, 소비, 직업, 국민경제, 국제경제에 대한 의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한정호(1992)는 부와 소유, 일과 직업, 소비와 지출, 경제사회관을 조사하였고, 최용희(1990)은 경제적 재화의 본질적 영역, 생산 및 획득적 영역, 관리 및 소비영역, 빈곤영역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이와 같은 경제윤리 의식을 통해 한국인의 경제가치관을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적 역할과 수행을 중심으로 미시적 경제행동 영역에서의 경제윤리 영역을 그 연구 영역으로 하여 전반적인 경제윤리의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2. 소비자 특성별 경제 윤리 의식의 차이

거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윤리의식에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감, 동일시 감정을 적게 가지는 편이다. 읍면지역은 주로 농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적 논리보다 상부상조의 전통적 논리가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도시 지역 학생들은 과소비와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적 경제윤리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

시 지역 중학생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경제윤리의식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선우, 1983; 이희구, 199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비생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이희구, 1991; 이종경, 1993),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바람직한 경제윤리의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의 비교할 때, 경제행동 관련 정직 의식, 절약과 검소 의식, 근면과 성실 의식, 헌신과 봉사 의식, 공정성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기타 연령대에 비해서 자기 중심적인 경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 재활용의식에서는 성인들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행동 수준은 높았으나, 남의 옷이나 물건을 얻어 쓰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는 의식이 높아서 의식과 행동에는 괴리가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2001)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절약하는 생활이 약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저축에 대한 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건전한 경제윤리의식을 지니고 있고 (이희구, 1991),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국내 일류회사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어 과소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경제윤리의식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 (장중용, 1994; 김현인, 1997; 양성곤, 1999). 또한 부모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제윤리 의식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이 그 자녀들의 경제윤리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양성곤, 1999).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2년 7월 7일에서 7월 29일까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행하였다. 조사는 전라북도를 1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북지역 인구주택 총조사기준에 근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별 표본을 할당하여 실행되어 1011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895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에 이용된 질문지는 기존의 경제윤리 연구들 (한국교육개발원, 2001; 권오신,2000; 김현인, 1997; 양성곤, 1999; 유경자, 1997; 유호현, 1999; 이종경, 1994; 이희구, 1991; 전영만, 1996)에서 연구된 경제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표본수(명)	구성비(%)			표본수(명)	구성비(%)
지역	시 지역	765	85.5	성별	남자	424	47.4
	그 외 지역	130	14.5		여자	469	52.5
연령대	20대	293	33.0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77	8.7
	30대	278	31.3		고등학교 졸업	383	43.2
	40대	191	21.5		전문대 졸업	133	15.0
	50대	125	14.1		4년제 대학 졸업	276	31.1
					대학원 졸업이상	18	2.0
연간 소득	1000 만원 이하	153	18.2	종교	기독교	301	34.2
	1001-2000 만원	211	25.1		천주교	106	12.1
	2001-3000 만원	237	28.2		불교	160	18.2
	3001-4000 만원	161	19.2		기타	21	2.4
	4001-5000 만원	55	6.6		종교 없음	291	33.1
	5001 만원 이상	22	2.6				

주: 문항별 무응답에 의해 표본수에 차이가 있음.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표 2. 경제 윤리 의식 하위영역과 관련 문항들의 신뢰도

<b>기업 윤리 (Cronbach's Alpha=.58)</b>	
기업 경영의 목표는 시장에서 이윤을 얼마나 내느냐에 있으므로 이윤이 난다면 무슨 업종이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여 성공하면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경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공장의 공해 배출 방지 시설비가 벌금보다 훨씬 많이 든다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	
기업이 자체기술을 개발해서 얻는 이윤보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이윤이 더 크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b>직업 윤리 (Cronbach's Alpha=.52)</b>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이다.	
재산을 모으는데는 개인의 성실한 노력보다는 정치적 배경이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b>근로 윤리 (Cronbach's Alpha=.58)</b>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 (-)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힘든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재산을 모으는데는 개인의 성실한 노력보다는 정치적 배경이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b>소비 윤리 (Cronbach's Alpha=.53)</b>	
탈세하지 않고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호화스런 생활이나 과소비를 해도 상관없다.	
물건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두어 대비한다.	
한낮 마을이나 학교, 직장 등에 필요없는 가로등이나 전등이 켜져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우유팩 모으기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다.(-)	
<b>절약과 검소 윤리(Cronbach's Alpha=.75)</b>	
쓸만한 물건이어도 싫증이 나면 새 것으로 바꾼다.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남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가짜라도 유명상표 제품을 선호한다.	
일상에 한번 뿐인 결혼식, 돌잔치, 회갑은 빚을 내서라도 성대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빚을 내서라도 혼수품은 일정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다.	
<b>공동체 윤리 (Cronbach's Alpha=.66)</b>	
쓰레기 소각장이 공청회를 거쳐 우리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됐다면 다소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더라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겠다.	
<b>공정성 윤리 (Cronbach's Alpha=.65)</b>	
원칙대로 살면 자기만 손해다	
원하는 일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선거 때 이왕이면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들에게 투표한다.	
합수만 있다면 돈을 주더라도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병역면제 등을 부탁하고 싶다.	
사업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로비나 접대가 필수적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처리 시설 등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반대한다.	
<b>근면 윤리 (Cronbach's Alpha=.53)</b>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다.	
부모님 재산으로 일을 안하고도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한다.	
돈은 성실하게 일해서 모으기보다는 복권이나 주식 등을 통해 단번에 불리는 것이 좋다.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나 아파트라면 빚을 내서라도 산다	
<b>기부 윤리 (Cronbach's Alpha=-.48)</b>	
홍수나 사고, 재해가 발생하면 기꺼이 성금을 보낸다.(-)	
불우이웃 돕기는 내가 잘 살고 난 다음의 일이다.	
<b>법 준수 윤리 (Cronbach's Alpha=.62)</b>	
가짜라도 유명상표 제품을 선호한다.	
극장표나 공연표를 구입할 때 암표를 산 적이 있다.	
세금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주: (-)문항은 변수 평균을 계산하기에서는 역코딩 점수를 사용하였음.

윤리 문항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관련 문항들은 5-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경제윤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위영역으로서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된 영역들에 기초하여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관련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표 2>; 기업윤리, 직업 윤리, 근로윤리, 소비 윤리, 절약과 검소 윤리, 공동체 윤리, 공정성 윤리, 근면 윤리, 기부 윤리, 법 준수 윤리.

그리고 이들 경제윤리 의식에 대한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수특성에 따라 t-검증 (주거지역, 성)과 one-way ANOVA (연령대, 학력, 연간소득, 종교) 검증을  $p < .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경제 윤리에 대한 의식의 일반적 경향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기업 윤리의 평균값은 2.68로서, 우리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인 업종확대, 경영권 세습, 공해 배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나타냈다.

직업 윤리의 평균값은 3.56으로, 직업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다른 것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 윤리는 평균 2.24로, 자신이 일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회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비 윤리 평균값은 2.38으로서, 개인의 소비 행위들의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절약과 검소 윤리는 평균 2.26으로, 개인적으로 절약하거나 검소한 생활의식을 보이며, 결혼식, 회갑, 돌잔치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의 과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 경향을 보였다.

공동체 윤리 평균값은 3.64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거나 참여하고, 고통을 분담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성 윤리 평균은 2.53으로, 선거의 금품제공, 대학 입학이나 병역 면제 비리, 업무관련 로비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비윤리적 행위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은 보였

표 3. 조사 대상자들의 경제 윤리 의식

	M (SD)
기업 윤리	2.68 (.81)
직업윤리	3.56 (.74)
근로 윤리	2.24 (.85)
소비 윤리	2.38 (.75)
절약과 검소 윤리	2.26 (.84)
공동체 윤리	3.64 (.79)
공정성 윤리	2.53 (.70)
근면 윤리	2.65 (.86)
기부 윤리	2.58 (.86)
법 준수 윤리	2.25 (.88)

주: 변수 평균은 관련 문항들의 평균값임.

다. 그러나 원칙대로 살면 손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면 윤리 평균값은 2.86으로서, 복권, 투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등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경제 의식은 보였지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기부 윤리 평균은 2.58으로, 기부에 대한 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법 준수 윤리 평균값은 2.25으로서, 상대적으로 법 준수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보였다.

##### 2. 경제 윤리 의식의 차이

###### 1) 주거 지역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주거 지역에 따른 경제 윤리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절약과 검소 윤리, 근면 윤리, 공정성 윤리, 기부윤리, 법 준수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4>.

그 결과,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보다 근로윤리, 근면 윤리, 공정성 윤리, 기부 윤리, 법 준수 윤리 의식의 평균값이 낮았다. 특히 법 준수 윤리는 그 차이가 컸다.

또한 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보다 공동체에 대한 윤리 의식과 절약 검소 윤리의 평균값이 높았다. 따라서 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보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거나 참여하고, 고통을 분담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 거주 지역 과 성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시 지역	시 외 지역	t 값
근로 윤리	2.28	2.02	3.22 ***
공동체 윤리	3.59	3.92	-4.38 ***
절약 검소 윤리	2.31	2.00	4.26 ***
근면 윤리	2.92	2.55	5.71 ***
공정성 윤리	2.56	2.36	2.68 **
기부 윤리	2.64	2.28	4.42 ***
법 준수 윤리	2.32	1.90	5.03 ***
	남성	여성	t 값
기부 윤리	2.64	2.54	1.85 *

\* p&lt;.05, \*\*p&lt;.01, \*\*\*p&lt;.001

## 2) 성별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성별에 따른 경제 윤리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기부 윤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금을 더 잘 보내고 이웃돕기에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표4>.

## 3) 연령대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연령대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은 기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소비윤리, 절약 검소 윤리, 근면 윤리, 공정성 윤리, 기부 윤리, 법 준수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5>.

그 결과, 20대 연령층이 50대 연령층보다 기업 윤리 평균값이 높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낮았으며, 20대 연령층이 근로 윤리 의식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30대였고, 50대 연령층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자신의 노력

보다는 부모에게 경제적 성취를 기대하거나 타인이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공동체 윤리 의식은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보다 평균값이 낮았으며, 소비윤리 평균값이 가장 높아 이들이 공동체 생활의식이 낮았고, 개인의 소비를 중시하고,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개인 소비의 영향이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30대가 그 다음이고, 50대가 그러한 경향이 가장 적었다.

절약과 검소 윤리의식은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 보다 평균값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이들이 과소비를 하는 경향과 타인을 의식하는 소비를 하는 경향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20대 연령층은 근면 윤리 의식, 경제 사회의 공정성 윤리, 기부윤리, 법 윤리 의식도 다른 연령층보다 평균값이 높았다. 이것은 20대가 다른 연령층의 전통적인 경제 윤리와는 매우 다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개인주의

표 5. 연령대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F 값
기업 윤리	2.81 b	2.65 ab	2.64 ab	2.50 a	1.69 **
근로 윤리	2.46 c	2.22 b	2.12 ab	2.01 a	11.25 ***
공동체 윤리	3.46 a	3.68 b	3.74 b	3.81 b	8.67 ***
소비 윤리	2.64 c	2.33 b	2.20 ab	2.11 a	22.80 ***
절약 검소 윤리	2.56 b	2.15 a	2.08 a	2.15 a	18.21 ***
근면 윤리	3.00 b	2.86 a	2.77 a	2.75 a	5.71 ***
공정성 윤리	2.70 b	2.42 a	2.48 a	2.48 a	8.45 ***
기부 윤리	2.78 c	2.57 b	2.48 ab	2.36 a	9.40 ***
법 준수 윤리	2.46 b	2.15 a	2.19 a	2.15 a	7.62 ***

\* p&lt;.05, \*\*p&lt;.01, \*\*\*p&lt;.001; a, b, c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표 6. 학력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학 졸	대학원 졸	F 값
기업 윤리	2.74 ab	2.57 a	2.75 ab	2.77 ab	2.88 b	3.15 **
소비 윤리	2.51 ab	2.27 a	2.45 ab	2.45 ab	2.61 b	4.17 **
법 준수 윤리	2.51 b	2.18 a	2.28 ab	2.28 ab	2.29 ab	2.43 *

\* p<.05, \*\*p<.01, \*\*\*p<.001; a, b, c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적인 경제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4) 학력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학력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은 기업윤리, 소비윤리, 법 준수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6>.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보다 기업 윤리의 평균값이 낮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를 통한 사회기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윤리에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자 집단보다 개인의 소비를 중시하고 개인 소비의 사회에 대한 책임 인식이 낮았다. 법 준수 윤리와 관련해서는 중학교 졸업자 이하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자 집단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중학교 이하 졸업자 집단의 법 준수 윤리 의식 평균값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가 상당히 컸다. 이것은 경제행위와 관련된 법준수 의식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5)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은 소비윤리, 절약윤리, 기부윤리, 법 준수 윤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7>.

그 결과, 최상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소비윤리 평균값이 높아 개인 소비를 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하위 소득 계층 사람들보다 절약과 검소윤리 평균값이 높아서 과소비 경향과 타인 의식 소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윤리에 대한 의식은 최상위 소득 계층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실제로 이웃돕기와 같은 경제시민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윤리는 소득 계층이 상위에 있는 집단이 하위 집단들보다 법 준수 윤리 평균값이 낮았는데,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집단과 1001만원에서 2000만원인 집단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최하위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의 일반적인 긍정적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소득과 학력수준이 최하위에 있는 하위 사회계층 사람들이 경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6) 종교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종교에 따른 경제 윤리에 대한 의식은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공정성 윤리, 기부윤리, 법 준수윤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8>.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로 윤리 평균값이 낮았으며, 천주교인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공동체 윤리 평균값이 높아 공동체적 삶의 경제윤리 적용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인들의 근로윤리 의식이 가장 높은 것은 기독교적인 청교도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인들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경제 사회의 공정성 윤리 평균값이 높아서 개인주의적인 경제태도와 뇌물과 같은 경제적 부정에 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

표 7.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1000만원 이하	1001-2000만원	2001-3000만원	3001-4000만원	4001-5000만원	5001만원 이상	F 값
소비 윤리	2.54 ab	2.30 a	2.30 a	2.43 ab	2.31 a	2.60 b	3.51 **
절약 윤리	2.40 ab	2.18 a	2.21 a	2.28 ab	2.14 a	2.56 b	2.11 *
기부 윤리	2.78 bc	2.59 ab	2.57 ab	2.40 a	2.46 a	2.93 c	4.02 ***
법 준수 윤리	2.45 b	2.12 a	2.23 ab	2.28 ab	2.28 ab	2.38 ab	2.66 *

\* p<.05, \*\*p<.01, \*\*\*p<.001; a, b, c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표 8. 종교에 따른 경제 윤리 의식 비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없음	F 값
근로 윤리	2.11 a	2.34 b	2.18 ab	2.35 b	4.83 **
공동체 윤리	3.70 ab	3.79 b	3.67 ab	3.53 a	3.62 **
공정성 윤리	2.42 a	2.55 ab	2.49 ab	2.62 b	4.17 **
기부 윤리	2.52 a	2.40 a	2.51 a	2.74 b	5.80 **
법 준수 윤리	2.15 a	2.31 b	2.22 b	2.35 b	2.74 *

\* p<.05, \*\*p<.01, \*\*\*p<.001; a, b, c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보다 기부 윤리 평균값이 높아서 기부행동에 덜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윤리 의식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값이 낮았는데,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제 중심층 소비자들의 경제윤리의식을 이해하고 이들의 경제윤리 의식이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 성인 소비자들(20대-50대)을 대상으로 한 895부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으로 전라북도 소비자들은 기업이나 사회전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여 사회적 윤리와 공정성 윤리를 강조하였으나 자기 개인의 경제 시민으로서의 역할에는 기업이나 사회의 경제윤리에대한 의식보다 무관심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직업선택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강조되었고, 근로윤리, 근면윤리와 같은 개인의 생산성 측면이 약하였다.

둘째,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개인중심적 경제윤리 의식을 갖고 있고, 과소비 경향이 컸으며, 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적 삶의 윤리 의식을 보다 더 유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논리보다 상부상조의 전통적 논리가 강하게 남아있는 경제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전의 연구(남선우, 1983; 이희구, 1991)와 일치하였다.

셋째, 20대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윤리에 대한 의식, 스스로의 근면 윤리의식,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낮고, 과소비 경향이 크며, 개인의 소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연령층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제윤리태도를 보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보다 자기중심적인 경제윤리 의식을 갖고 있어 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낮았다. 또한 저학력,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경제 행위를 보다 용인하는 경제윤리의식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개인이나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경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윤리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경제윤리는 개개인의 이윤추구와 자유선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적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젊은 층이, 도시지역이, 그리고 사회계층이 높은 소비자들이 그런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런 경향은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인 경제윤리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을 아직도 우리 문화전통으로서 남아있는 전통적인 유교적 경제윤리 관점에서 현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의식이 비윤리적이며, 경제윤리가 붕괴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도시화 현상에서 두드러지며, 20대 신세대들이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경제윤리 의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보다 일반적 경향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경제태도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유 선택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윤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이익추구는 사회와 타인의 이익추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행



동이 사회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함을 전제할 때, 경제사회 전체의 발전과 복지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경제윤리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유연하게, 그리고 경제사회의 다른 일원들에게는 단호하게 적용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의 상위계층이 경제사회에서 갖는 책임과 영향은 하위계층이 갖는 책임과 영향보다 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위계층의 자기중심적인 경제태도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생들의 경제윤리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김현인, 1997; 양성곤, 1999; 이희구, 1991; 장중용, 1994)이 같은 결과를 보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경제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과 선택 추구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조화롭게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경제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사회에서의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의 경제윤리 의식이 자녀들의 경제윤리 의식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므로 부모교육과 청소년의 경제윤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류 사회계층과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모든 소비자들이 경제사회에서 자신의 건전한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요구되며,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가치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주제어 : 경제윤리, 소비자 특성, 전라북도

## 참고문헌

- 권오신 (2000). 종교가 경제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인. (1997). 가족환경유인이 경제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성곤. (1999). 중학생들의 경제윤리의식 조사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경자 (1997). 학업성취도와 경제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호현 (1999). 고등학생의 경제가치관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구(1991). 중학생의 경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경 (1994). 중고등학생의 경제윤리의식과 가정환경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영만 (1996). 경제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요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1).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1.
- Furnham, A.(1990) A content, correlational, and factor analytic study of seven questionnaire measures of the protestant work ethic. *Human Relations*, 43(4), 383-399.

(2003. 3. 15 접수; 2003. 4. 28 채택)